

주간 총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전교인 부흥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느 8:1)

다음 주일, 제 6차 성찬식

일시: 9월 3일(다음주일),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 성결한 삶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원 화요집회 휴무

일시: 8월 29일(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감사예배

- 일시: 2023.9.10(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충현교회 본당
- 설교: 권순웅목사(총회장)
- 대상: 충현교인 및 본교회 출신 목회자/성도
- 2부: 축하행사



권순웅목사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역사자료 전시회

일시: 9월 1일(금)부터 장소: 본당 1층(갈릴리홀 앞)

제 11기 중보기도 훈련 수료 및 11차 헌신 서약

일시: 8월 27일(오늘) 찬양예배시

대상: 제 11기 중보기도 훈련 수료자 및 11차 헌신 서약자

전교인 부흥회 안내

1. 부흥회 감사헌금을 부흥회 기간 동안 드립니다.
(헌금함: 본당 1층, 2층 입구에 비치)
2. 주보에 삽입된 기도카드에 기도제목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부흥회 기도회 시간에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카드는 부흥회 기간동안 매일 제출 가능)
3. 부흥회 집회 시 좌석을 교구별, 부서별로 착석합니다.
(자유롭게 착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당 중상층 이용)
4. 부흥회 참석을 위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여성: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 남성: 제1교육관 2층 유아부실, 09:00~18:00)
5. 부흥회를 위한 셔틀 차량 운행 합니다. (역삼역↔교회, 16:30~18:00)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이웃과 함께 하는 음악회

ELIJAH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야

충현교회 연합찬양대 |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2023. 9. 8. 금. 오후 7시

충현교회 본당

70
CHOONGHYUN CHURCH

교회설립 70주년

전교인 부흥회

주제: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8. 30(수) ~ 9.01(금) 저녁 7시 30분

장소: 충현교회 본당

8월 30일(수)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원로)

본문: 에스겔 36:26-28
제목: 새 언약의 능력으로

8월 31일(목)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담임)

본문: 창세기 45:1-5
제목: 충현 성도의 세가지 고백

9월 1일(금)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담임)

본문: 요한복음 21:15
제목: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부스러기 여인’의 믿음

(마가복음 7:4-3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막 1:1)”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뿌리에서 나신 분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서두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급박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차례로 순교하여 교회의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여 전해야 할 다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등장한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막 15:39)”도 마가복음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예수님 최측근 제자로서의 신앙고백이라면,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황제 외에는 종교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트 군인이자 이방인으로서의 순전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 이해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엡 1:17)”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입니다. 성도는 신앙고백을 통하여 닦을 내린 배처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옷자락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4절)” 예수님의 높았던 인기는 예수님에 대한 경계도 초래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시고, 갈릴리 호숫가의 게네사렛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5-26절)” 갈릴리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방인들의 땅이었지만, 그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이 유대인 여성조차 잘 만나주지 않는 문화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주실 이유는 없었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아래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당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예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막 6:56)” 옷자락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슷한 이미지를 지닙니다. 12년간 고생했던 병으로 인해 극히 방어진적이고 수줍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경험한 놀라움을 가리켜, 어느 시인은 그의 시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곧이어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신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 억눌리고 소외받았던 여인은 그녀의 병뿐 아니라 삶까지도 치유 받게 되었습니다. 옷자락 여인의 믿음과 겹쳐볼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교훈해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부스러기 믿음의 본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28절)” 수로보

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언뜻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점이라도 먹고 싶어 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가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그녀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이란 ‘신뢰, 의존, 고백, 동행’이라는 4가지 요소로 설명되는데, 삶이 어렵지 않은 때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하며, 힘들어 때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던지고 고백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켜 ‘개’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글과 성경구절을 깊이 연구해보았지만, 이토록 심하셨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성경은 한 이방 여인이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구걸하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르면 유대인이 복음을 받은 후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채 복음을 다 받기도 전에 이방인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옷자락 여인에게 하셨던 ‘네 믿음이 좋다’는 말씀이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조차 없었던 이유입니다. 부스러진 이방 여인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 4:50)”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그의 병든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미 다 나았으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의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29절)” 반면 본문의 ‘이 딸’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 아래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5대 목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 세 번째인 ‘민족복음화’는 한반도 전체를 예수 믿는 민족으로 만들고자하는 목표로서,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부스러기 여인의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그 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스러뜨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단 한 순간이라도 붙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교회 5대 목표 중 민족복음화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복음화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실 때 더 애써야 했지만, 교회가 많아지고, 부유해지며, 자원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한 민족 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낮은 마음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스러짐이 필요합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일을 잘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여인의 고백을 기뻐하셨으며, 그 여인의 태도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알고, 부스러기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Faith of the Crumb's Woman

(Luke 7:24-30)

Rev. Kyu Sam Han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Mark 1:1)" Unlike the Gospel of Matthew the first chapter of which mentions the genealogy of Jesus and the root from which Jesus was born, the Gospel of Mark shows the urgency of proclaiming Jesus is the Son of God from the beginning. In the state that Nero, the emperor of Rome persecuted Christianity, Peter and Paul were martyred one after another and so there was no leader in the church, and therefore, there was an urgency to have to record and deliver who Jesus was and what he did. Peter's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is the highlight of Mark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fessions, and the centurion who appeared when Jesus was crucified said, "Tru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Mark 15:39)", which also belongs to the most important confessions in Mark. This is because if Peter's confession of faith was a confession of one of the closest disciples of Jesus, the centurion's confession was a pure confession from an elite soldier and gentile, who served the Roman emperor as God and could not have any religion except the Roman emperor. The confession of faith is possible when one has an understanding of Jesus and God, not from one's own strength, and the understanding begins with the revelation from God.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Eph 1:17). That's why the Apostle Paul prayed to God for believers in Ephesus 'to give the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Through the confession of faith, the faith of believers can be unshaken like a docked ship and developed as a belief unshaken by any circumstance or man.

A woman of the hem of the garment and a Syro-Phoenician woman

"And from there he arose and went away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yet he could not be hidden.(Mark 7:24)" The high popularity of Jesus brought the necessity of vigilance for Jesus, so Jesus was one step away from the ministry and went to Tyre which is about 60 Km away from Gennesaret by the Sea of Galilee. "But immediately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had an unclean spirit heard of him and came and fell down at his feet. Now the woman was a Gentile, a Syro-phoenician by birth. And she begged him to cast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vv. 25-26)". Even though the region of Gentiles was far away from Galilee, there was a person who came seeking Jesus even from there. It was the very Syro-phoenician woman whose young daughter was unclean-demon possessed. Considering the Jewish culture at that period in which Jewish men do not often meet even Jewish women, Jesus has no reason to meet a gentile woman, but this woman knelt down before Jesus with earnestness and lament like Maria who broke an alabaster jar of perfume. "And wherever he came, in villages, cities, or countryside, they lai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and implored him that they might touch even the fringe of his garment. And as many as touched it were made well.(Mark 6:56)" A woman of the fringe of his garment has an image similar to the Syro-phoenician woman. Indicating the surprise that the woman who became extremely defensive and timid because of suffering from a disease for 12 years experienced when she touched the fringe of Jesus' garment, a poet expressed it in his poem as "overwhelmingly startled". What was the more surprising fact was the part that immediately Jesus asked who touched the fringe of his garment. Through this question of Jesus, a woman who was oppressed and marginalized was healed from not only her disease but also her life. When we overlapped the faith of the woman of the fringe of the garment, the appearance of the belief that Jesus instructs us through the faith of the Syro-phoenician woman becomes more clear.

The essence of the faith of crumbs

"And he said to her, "Let the children be fed first,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But she answered him, "Yes, Lord; ye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vv. 27-28)" The faith of the Syro-phoenician woman was the beautiful faith Jesus wanted

to see. We are likely to see it at a glimpse as a servile appearance of wanting to eat a piece of crumb under the table, but when she knew crumbs of the Heavenly Kingdom are more precious than the gold and silver treasures of the world and came with extremely pleaded feelings, Jesus saw her faith as pure faith. Faith is explained by four elements such as 'trust, dependence, confession, and companionship'. When life is not so difficult, one must train the faith to trust God more and to accompany God better, and when life is difficult, one must throw everything to Jesus and hold on to God with the faith of confessing. It was the appearance of the Syro-phoenician woman who throw herself to Jesus completely and confessed.

However, I sometimes wonder why Jesus referred to the Syro-phoenician woman as 'a dog'. It was because there was no time when Jesus was so harsh like this when I studied the writings about Jesus and the Bible verses. Here the intention of Jesus is hidden. The Bible tried to mention God's plan of salvation, not the primitive human instinct for survival like that of a gentile woman begging even a piece of crumb. According to God's plan for salvation, after the Jews received the gospel, gentiles were to receive the gospel, but through the event of the Syro-phoenician woman, even before all the Jews received the gospel, the path through which gentiles could listen to the gospel of life was opened. That's why Jesus didn't say "great is your faith!" or 'Your sins are forgiven.' as he said to the woman of the fringe of the garment. We should remember a historically surprising event can happen even to a gentile woman's crumbled life when God works for it.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nation

"Jesus said to him, "Go; your son will live."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spoke to him and went on his way.(John 4:50)" When the royal official who appeared in John 4 came to Jesus because of his sick son, Jesus said to him to go because his son had been already healed.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and while he was on the road, he knew through his servant that his son had been healed at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And he said to her, "For this statement you may go your way;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v. 29)" On the other hand, "And he said to her, "For this statement you may go your way;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v 29)" 'this statement' in the text is not what Jesus said but the confession of the Syro-phoenician woman,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When the woman confessed to Jesus with faith, an amazing thing happened. Celebrating the seventy-year anniversary of our church, I am examining the Five Goals, and the third goal among them, 'the Evangelization of the Nation' which is the goal that aims to make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e nation believing in Jesus, was enacted 55 years ago. I believe God loves our nation. Therefore, God sent missionaries who had the faith of crumbs, and they broke their lives into crumbs before God, trying to hold on to even one moment God is working. Nevertheless, I think the evangelization of the nation among the five goals is the goal which is the most difficult to be practiced. It's because we lost the golden time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nation. When God used our churches, we should have labored more, however, as the number of churches has increased, the richer churches have become, the more abundant resources churches have got, and we have rather elevated ourselves. When the gospel enters a nation, the lowly heart and humility of the Syro-phoenician woman, and breaking into crumbs before God are needed. That's why we should remember what the Syro-phoenician woman did well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nation.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knowing how the Lord was pleased with the confession of the woman, and what an amazing thing the attitude of the woman fulfilled, you will become the people of God, who run forward to the works God has given you with the faith of the crumb's woman.



사랑부 여름수련회

사랑부 여름수련회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주제로 8월 14일~15일 1박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랑부 성도, 교사, 부모님, 자원봉사자 총 190명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공동체 활동, 물놀이, 부흥회와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함께 자녀를 위한 고민을 나누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름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4~15일 1박2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한 사람도 사고 없이 잘 다녀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 봉사자님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셔서 행복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행복하고 예쁜 사진이 엄청 많네요. 호복이는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감사드립니다. 사진 보니 한 컷 한 컷이 수련회의 은혜를 새록새록 떠오르게 합니다. 아멘!!!

사랑부 최호복 성도

사랑부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제 안에 주셨던 감동은 성도님들과 저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함께하는 사랑부 선생님, 봉사자, 사랑부 성도들 모두가 다를지라도 성도의 삶은 동일한 자리에서 시작함을, 세상 앞에 두렵고, 좌절하는 슬픔을 서로가 너무 잘 알기에 위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큰 기쁨과 회복이 있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모두를 각자의 모양대로 만들어가 주실 매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파이팅!

자원봉사 청년2부 94동기 원승연 자매

사랑부 여름수련회에 참석한 고영우 아빠입니다. 먼저 아무 안전사고 없이 은혜 중에 마무리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내내, 그리고 전후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 부모님들, 헌신해 주신 봉사자분들께 주님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가 은혜로웠지만 특히 부흥회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 시간은 너무나 감사했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한 우리 교회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윤석 성도 (고영우 아버지)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사랑부 성도들 모두가 너무 의젓하고 진지하고 한분 한분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환한 얼굴과 미소로 최선을 다해 수련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 때에는 모두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과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믿음과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선생님, 자원봉사자 모두가 사랑으로 사랑부 성도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출발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금순 성도 (최호복 어머니)





일본 1팀 단기선교 후기

- 일본 도쿄, 8월 2일(수) ~ 8월 7일(월) -



폭염의 한 귀퉁이... 8월 2일 새벽4시 교회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아 이제 일본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구나!"라는 감동이 마음 한 구석으로 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반복된 언어 연습과 찬양과 율동 등 낮가림이 많은 나에게는 분명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무척 재미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몸은 벌써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브릿지 공동체의 지체로만 구성된 팀이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선교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일본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현지 교회인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조용길 목사님 시무)와 협력하여 교회 총동원 주일을 통해 지역 사회의 영혼들에게 음식 나눔과 바자회를 통한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고향의 집 동경"이라는 요양원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총현 부채 전도단의 부채춤을 포함한 위문 공연과 음식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단기 선교의 중점 사역이었습니다. 9명(남자-3명, 여자-6명)으로 구성된 다음 세대인 브릿지 공동체 지체들이 폭염의 날씨에도 지친 기색과 불평 없이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미래의 총현 교회 70년을 맡겨도 다음세대가 든든히 세워 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에는 거의 36도를 넘나드는 폭염인데도 교회 부근의 집들을 사랑의 교회 사모님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며 총동원 주일과 바자회를 통해 음식 나눔이 있다는 설명을 전달할 때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수하였으며, 총동원 주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음식 만들기도 모두 피곤하였지만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두 참석하여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 드리고 음식 나누기와 바자회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낮선 일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으로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김희연 팀원의 특별 찬양(김지선 팀원 반주)과 선교팀의 찬양을 통해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과 부채춤과 음식 나누기 봉사를 하였던 우리 모든 팀원들의 하나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이 이 일본 땅과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위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강남석 안수집사

대학부, 청년부 때 갔던 선교는 정말로 씨를 뿌리는 선교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전도 언어에만 의지했던 선교였습니다. 이번에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협력 선교는 그 때의 날것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며 지역주민을 섬기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달랐고 좋았습니다. 일본 땅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갈급해 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웠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역은 협력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공연을 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마쓰리(바자회)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축호전도를 하고 노방전도를 했던 지난날 선교와는 또 다른 기쁨과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 나가는 데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를 크게 쓰실 것을 믿으며,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총현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집사

2023년 11기 종보기도 사역훈련 수료자

(2023. 8. 5. ~ 8. 26), 48명



수료자 명단				
강신순	고윤희	곽병순	길보숙	김경숙
김규상	김동균	김선희	김양순	김영화
김월분	김인석	김주원	김진신	김혜순
김홍자	김효경	김희동	문현주	박경애
박순미	박형남	배현수	서귀순	서현옥
송정화	신혜옥	심미정	안응화	양영애
유춘남	윤아리	이경자	이연숙	이인용
임금순	장숙희	정은숙	정이숙	조성옥
조영례	조영자	최재민	한진	함진옥
현명진	현옥련	황윤모		

강남 이동 노동자 심터 얼음생수 지원

충현교회에서는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폭염
중에 수고하시는 강남구청 주관의 이동 노
동자(택배 기사)에게 얼음생수(3000개)를 지
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역사자료 전시회

교회설립 70년의 역사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오픈일시: 9월 1일(금) 16시

장 소: 본당 1층 (갈릴리홀 앞)

내 용: 교회 70년간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물품



예꿈교실 23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기간: 9월 10일(주)~12월 17일(주) 프로그램명: 창의미술, 창의보드(선착순 접수) 대상: 유년부, 초등부

신청기간: 8월 26일(토) 10:00 ~ 9월 2일(토) 17:00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충현교회 홈페이지-교육훈련-교육위원회-예꿈양육부 게시판을 참고

문의: 010-2783-0773(김희석집사)

전도훈련(기본교육)

일시: 9월 2일(토) 10:00 ~ 12:00 장소: 제1교육관 501호

대상: 동역교회 전도지원 참여자 및 희망자 주관: 전도위원회

2023년 충현 평생 대학원 가을 학기 (10기)

강좌 소개 3 (음악학부 + 건강학부)

1. 대상: 충현교회 성도 및 타교인 및 일반인
2. 교육 기간 : 2023. 9. 13(수) ~ 11. 10(금) (총 8~10주), 주중 (수/목/금)
3. 교육 방법 : 대면 강의 및 온라인 (Zoom 혹은 유튜브 동영상) 강의
4. 교육 내용 : 5개 학부(영성학부, 교양학부, 어문학부, 건강학부, 음악학부) 38개 강좌 (신규 4강좌 포함 대면 31개 강좌 , 영상 강의 7개 강좌)
* 요일 및 시간이 다를 경우 중복 신청 가능, 영상 강의는 모두 중복 신청 가능
5. 수강료 : 없음 (단, 강좌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나 도서는 본인 준비) * 중식 제공 (12:00 ~ 12:30 시간 준수)
6. 특전 : 영성학부 (기초 헬라이어 II, 기독교 세계관)에 한하여 수료 시 2학점 부여
7. 수강 신청 : 충현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구글 설문지, 쿠팡 코드 링크로 작성 제출 (23. 8. 11(금) ~ 9. 10(주일))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태일희 권사 010-2716-5407



학부	강좌
영성학부	기초 헬라이어 II / 기독교 세계관
어문학부	기적의 수어 첫걸음 / 찬양 중국어 / 영어 성경암송 / 일본어 중급 / 일본어 초급
교양학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자녀 양육 / 닥종이 공예 / 에세이 교실 / 자서전 쓰기 / 시낭송, 성시낭독 / 책나눔 /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여행-초급, 중급 / 스마트폰 기초반 / 스마트폰 활용반 / 교정 메이크업 / 색연필화 / 사قم의 대화 / 스피치와 리더십 / 서예- 초급, 중급
건강학부	건강 걷기 Walking with Jesus / 수지침 / 건강 스트레칭 & 근육저축
음악학부	즐거운 성악 발성 / 팬플룻 기초, 기존 / 기타 / 하모니카 / 우쿨렐레 / 만돌린 / 플룻 / 찬양 Q&A2 / 재미있는 교회 음악사2

2023년 가을 학기(10기) 강좌 소개3 - 음악 + 건강학부

학부	학과		강의 시간	내용
건강	건강 걷기 walking with Jesus (김정숙 성도)		목요일 10:00-12:00	“바른 자세와 워킹에 대한 이해와 실기~” 건강 걷기를 위한 워킹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건강관리는 물론 당당한 걸음걸이로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외적 내적 변화를 이루어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시간입니다. 건강 걷기와 바른 자세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건강	수지침 (이현규 집사)		목요일 10:00-12:00	(*1년 과정으로 2학기 수강생 모집 안함.) 수지침을 배우는 것은 집 안에 주치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과 실제 연습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수지침 강의입니다.
건강	건강스트레칭&근육저축-신규 (임금순 권사)		금요일 15:00-16:30	나이 들면 빠지는 근 감소를 예방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운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올바른 자세와 근육을 만들어 통증 완화와 바른 자세로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 운동부족이라 느끼시거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 하거나 힘들까봐 용기내지 못 했던 분들 도전해보세요.
음악	즐거운 성악 발성 (이상주 집사)		수요일 13:00-14:30	(*선착순 8명) 노래에는 여러 장르가 있고 다양한 발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악 발선이 모든 노래의 기본이기도 하고 가장 예술적이기도 합니다. 합창, 독창, 뮤지컬, ccm 등 모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발성의 기초를 1:1 개인별로 발성 지도를 해 드립니다.
음악	팬플룻 (이승순 권사)	기초반	수요일 13:00-	에덴 동산 신비한 자연의소리가 느껴지는 팬플룻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 분은 모두 환영합니다. 악기를 제대로 부르다 보면 장운동으로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즐겁게 성실하게 꾸준히 하실 분 환영! *팬플룻 악기를 개강 전에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기존반	수요일 14:00-	
음악	기타 (윤주성 집사)		목요일 10:00-12:00	(*선착순 10-12명) 찬양으로 좀 더 보람을 찾고 행복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기타를 배워보세요.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가곡코드 몇 개를 가지고 찬송가 전부와 복음송 대부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기타와 카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입 하셔야 할 분들은 개강전에 강사님께 알려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음악	하모니카 (이광현 집사)		수요일 13:00-15:00	하모니카의 다양한 음색을 느끼게 되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담백하고 고즈넉한 음색을 익히시면 그 어느 자리에서나 환영받는 연주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	우쿨렐레 (강길례 권사)		목요일 10:00-12:00	찬양 받으시기 위해 지음 받은 우리는 우쿨렐레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받은 은혜로 자신의 삶을 활력 넘치는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 계이름을 알고 찬양에 열정을 가지신 분 * 우쿨렐레 소지자
음악	만돌린 (장연희 권사, 이연순 권사)		목요일 10:00-12:00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시150:6)” 만돌린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수요일예배 만돌린 연주대를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됩니다.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분으로 처음 만돌린을 접하시는 분(초급자)과 중급자 모두 가능합니다 *수업 전 만돌린 악기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악	플룻 (이진 집사)		금요일 10:00-12:00	(*선착순 4명) 1학기 때 선착순으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을 위주로 선착순 4명 모집하여 은혜롭고 실력 있는 개인 레슨을 해 드립니다.
교양	찬양 Q&A 2 (조정민 집사)		영상	찬양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더욱 깊이 있게 찬양을 이해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 성도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모든 장르의 교회음악에 관한 궁금증 해결) 찬양대원과 찬양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많은 수강 부탁드립니다.
교양	재미있는 교회 음악사2 (김형삼 무임집사)		영상	교회음악의 역사를 중심으로 음악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종교개혁가인 M.Luther와 J.Calvin의 교회음악관 비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음악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 오늘 날까지 왔는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음악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동서울노회 제104회 정기노회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 가. 각종 고시청원(목사, 장로, 전도사)
- 나. 강도사 인허청원 및 고시청원
- 다. 기타청원(신학계속추천청원, 각종 이명청원 등)
2. 제출처 및 기간: 충현교회 사무국(담당자 내선401번), 9월 3일(주일)까지

2023년 하반기 추가 회계 교육

일 시: 8월 27일(주일) 16:30~18:00

대 상: 각 위원회 및 산하부서의 회계, 부서장 또는 부감(위원회 간사)

장 소: 제1교육관 401호

제3회 CMTC 훈련

일 시: 23년 8월 27일(주일) 16:30 (2차) 장 소: 베다니홀

안수 집사회 31대 회장 선거

일 시: 9월 24일(주일) 12:10 장 소: 집사회 사무실

안수 집사회 회장후보 등록

기 간: 8월 20일(주일)~9월 3일(주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012	이우주	유년부	조재윤
2	1091	허보윤	고등부	
3	1350	고정우	유아부	
4	1475	김태오	영아부	
5	1478	김서로	영아부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235	강하람	유년부	권정자
2	1292	강하늘	유치부	권정자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463	오경희	에바다부	이재옥
2	1469	방수현	기본과정	권수현
3	1472	이제니	기본과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461	이경이	브릿지	

결혼

1. 정태준 군(정돈영 서리집사·이진주 서리집사의 아들, 8교구)과 김은혜 양(김향울 타교장로·이갑숙 타교권사의 딸) / 9월 2일(토) 12:00 충현교회 갈릴리홀

별세

1. 서양순 은퇴권사(정선현 은퇴장로의 모친·정중현 집사의 모친·정현자 권사의 시모·이정임 집사의 시모, 10교구) / 19일 별세, 21일 장례
2. 김강민 타교목사(김은석 성도의 부친·김순옥 집사의 시부, 8교구) / 19일 별세, 21일 장례
3. 김동심 타교은퇴권사(김연태 은퇴장로의 모친·박현숙 은퇴권사의 시모, 6교구) / 19일 별세, 21일 장례
4. 박해수 타교성도(박미향 집사의 부친·이성희 집사의 장인, 3교구) / 20일 별세, 22일 장례
5. 서남준 성도(김영순 권사의 남편·서하얀 성도의 부친·서용탁 성도의 부친, 10교구) / 23일 별세, 24일 장례
6. 김해길 은퇴안수집사(김구연 성도의 부친·김상영 성도의 장인, 6교구) / 23일 별세, 25일 장례
7. 전용호 성도(전승기 집사의 부친·박경희 집사의 시부, 10교구) / 24일 별세, 26일 장례

예배 담당(8/30~9/3)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8/30	수요 I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눅 9:28-36) 전영재 목사	박성덕	정영임
9/1	부흥회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요 21:15) 김남준 목사	윤준식	
9/3 제6차 성찬식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양' (요 10:16-18) 한규삼 담임목사	김승래 문진호 이기영	김영주 이상복 지규성
	주일찬양	탄식 속의 소망 (왕상 19:1-8) 박요셉 목사	김유석	강성희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8/28~9/3)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8 (월)	권혁근/최병일	시 91:1-16	7교구
29 (화)	한규삼/이상배	시 92:1-15	전교인
30 (수)	임진실/김기완	시 93:1-5	전교인
31 (목)	강성은/김용우	시 94:1-23	전교인
1 (금)	이기영/정재석	왕상 1:1-10	1교구
2 (토)	김상래/김상래	왕상 1:11-27	전교인
3 (주)	임진실/임진실	왕상 1:28-37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금주 기도원 집회는 쉽니다.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시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르투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성섭 행정위원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중보기도부장
조종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합별루아전양대장
김명성 치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성역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규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건축위원장	배종락 예루살렘찬양대장	김철남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부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찬양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임마누엘찬양대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선교위원	김세종 헌금부장	한홍연
최규옥 예배위원	최승민 재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안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장	김주환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신혼가정부	김승래 사랑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최동현	윤해균	윤병범	강영미	한용관
------------	-----	-----	-----	-----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웁	스테판	파우치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산숙	김영남	김영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섭	홍정화		